

제
8
호

춘천시신문

- 전시민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조남진 편집인:조충환 (200-091)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0361)256-1260-1 FAX(0361)257-1260

부활의 새아침에 하나된 교회

춘천기독교 연합회장 김광국 목사(성광교회)는 99년 부활절연합예배를 4월4일 아침5시 시청광장에서 2,00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사랑의 무덤을 해치고 생명의 부활로 인간들에게 영원한 삶의 길을 은

헤로 주신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활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것이다.

부활신앙은 나와 교회 직장사회를 살리는 힘의 원동력이며 부패와 남비 무질서와 같이하는 삶은 죽은 신앙이다.

금년 부활절을 지낸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나의 신앙생활모습이 어떠한

지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오늘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은 죽은상태의 교인들에게 맞추어지고 평가되고 있는것 같다. 윤리·도덕 가치관이 전복되고 있는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겠다.

부활절예배는 한글목사(평화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었고 석사감리교회 이영일장로 대표기도, 삼천 번영교회, 신재원목사 성경봉독, 동부교회 박상만장로 헌금기도, 순복음춘천교

회 김주환목사 그리스도교회 조영호 목사 특별기도, 중앙성결교회 윤철중 목사 축도와 배계섭시장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김광국목사는 부활절메세지를 통해서 무덤속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승리하신 나사렛 예수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증언하였으며 부활 신앙생활을 통해 춘천을 복음화·성시화 하자고 역설하였고 모든성도들은 아멘으로 통합 의지를 표현하였다.



감리회 제58차 동부연회 개최



권 오 서 감리사
(춘천서지방, 중앙교회)



차 관 식 감리사
(춘천동지방, 제일교회)



한 군 감리사
(춘천북지방, 평화감리교회)



김 명 분 감리사
(춘천남지방, 창대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김명기감독(원주제일교회)은 4월6일부터 8일까지 속초감리교회에서 제58차 연회를 열고 2000년대를 향한 선교정책 추진결의와 22개 지방감리사 선출, 춘천북지방, 원주남지방, 영월서지방 신설을 결정하였으며 지난 1년간 교회성장과 선교, 봉사활동에 대한 감리사의 행정 보고, 각기관의 사업 보고를

듣고 분과위원회별로 2천년 대를 맞아 실생활 선교정책을 토의 및 의결하였다.

그리고 99년도 동부연회표어를 "선교와 봉사로 21세기를 열어가는 연회"로 할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긴급과정중에 있는 목사 179명에 대한 성품통과와 45명의 목사안수식을 거행하고 선출된 22개 지방감리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2년임기를 마친 19개 지방 감리사들에게 공로패증정이 있었으며 동부연회발전을 마감하고 만70세에 은퇴



하는 이암은목사(동해제일교회) 등 5명의 은퇴찬양예배를 드렸다.

김명기감독은 연회첫날 동부연회 22개지방 563개 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장로, 권사대표 1107명이 함께 개최예배와 성찬예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며 설교에서 강원지역은 감리교선교역사 1백년에 이르르고 있으므로 21세기를 향한 선교에 막중한 사명을 인식하고 성직자와 성도들이 하나되어 기도하며 실천할 것을 당부하였다.

폐회식에 앞서 "영월동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특별성명서를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오는 2000년 4월 차기연회는 새성전을 마련한 춘천석사교회(임택창목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김기태 장로제공)

이달의 강단 · 이달의 앙식

「기도의 4대요소」

(창세기 32:3-12)



유진형 목사
남춘천감리교회

성시화를 위하여 매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헌천이 정말로 성사가 될 줄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저는 별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계기가 있어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헌천에 성시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지나번 사주신 비싼 학습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제 성적이 속속 올라간 것 같아요. 아빠 이번에는 K 학습지를 사야겠어요. 그 학습지는 제가 제일 취약한 국어과목 성적을 올리는데 탁월하다는 정평이 나 있대요.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예요." 아버지는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간구는 기도의 4대요소가 다 들어있는 성숙한 간구입니다. 지나번 사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랄라는 간구와 꼭 사야할 이유 그리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유치원생이라면 "아빠 꼭 사줘요!" 하며 물어대기만 했을 겁니다. 본문의 아람의 기도도 이 4대요소를 잘 갖춘 성숙한 기도였고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첫째 요소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그것과 관련된 감사기도부터 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아람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복과 은총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하십니다. 아람과 같이 감사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두 번째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치러 오는 형 에서에 대하여 아람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거절 못하시고 주실 줄을 믿습니다. 1912년 4월 한 미국인 부인은 출타 중 귀가가 늦은 남편이 걱정 되어 피곤을 무릅쓰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마음에 평안을 느끼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남편은 침대를 가는 타 이타너호에서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극적으로 탈출하여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 셋째요소는 이유를 대는 기도입니다. 무턱대고 간구만 하는 게 아니라 타당한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아람은 "하나님, 지금 저를 지켜주십시오.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셔서 제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유를 대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꼭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논리 정연한 기도, 이유를 대며하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네 번째로 약속을 믿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아람처럼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3만개 이상의 축복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생활도 성숙한 기도, 응답 받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또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기도 성시화를 꼭 달성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의하여」

(잠언 16장 1~4절)



박상호 목사
제일장로교회

오늘날 교회 지도자일수록 예수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지르기 쉬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신도 보다 집사, 장로, 목사순으로 쉽게 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앞세워 남용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 있고 좋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갈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표준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이 마음의 경영도 하나님의 표준대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1-11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중동지역에서 2년간 생활한 적이 있는데 회교도(이슬람)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한 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금식을 하고 일몰후 밤에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

렇게 해도 한달 동안 금식하고 나면 몸이 엄청 수척해집니다. 그들은 금식기간이 끝나면 메카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예수님은 주간에도 야간에도 드시지 않고 완벽한 금식을 끝내고 사탄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민족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말을 수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로 가지 못하더라도 모로 가지는 말자." "차라리 서울은 안가더라도 모로 가지는 말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자기의 표준으로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표준대로 기도응답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내게 더도 말고 그저 신유 은사를 주시옵소서." 난리법석을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표준입니다. 그 표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분을 저기에 두셨을까? 이때 하나님의 표준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그를 평가, 판단한다면 큰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그 악한 날을 위해서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표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있게 하시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돕고 협력할 사람이 필요하더라면 하나님이 인력의 축복을 주셔서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준으로 헌천을 성시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2. 주기철 목사의 생애

(1) 시대적 배경

어떤 사람의 영성을 연구함에 있어 그가 성장했던 가정의 배경, 그가 처해 있던 시대적인 배경, 교육의 배경과 그 사람의 신학과 목회사역을 먼저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의 생애에 대한 연구가 먼저 요청되는 이유는 영성적 그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형성되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기철 목사의 순교 영성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생애와 신학을 파악하는 것이 요청된다.

청일전쟁(1894-1895)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서 청국을 내몰고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러일전쟁(1904-1905)을 계기로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성립시키더니 1910년 8월에 한반도를 병합하였다.

주기철은 서구 열강의 손길에 갇힌 수단을 다해 조선을 넘보던 때인 대한제국 원년(1897)에 태어나 일제의 침략 말기에 하나님의 무릎을 받아 순교하였다. 이와같이 주기철의 생애는 한국의 일제하의 피치라는 시대를 망라하며, 한국교회의 형국의 때와 일치한다. 그의 생애는 우연히도 일제의 한국지배의 역사와 맞물려 있으며, 그의 생애의 시대적 배경은 곧 한국기독교사 전체와 겹친다. (민경배, 「순교자 주기철 목사」, 11쪽) 따라서 주기철의 생애를 역사평면에 투영하면, 그것이 곧 바로 한국교회사의 영국의 파란 많은 일대기가 된다. 이와 같이 주기철 목사가 살던 시기는 한국교회의 '젊은 날'이요, 왕성한 생명력과 활동, 그리고 모험의 시기, 진실이 시험되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은 역사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순교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때였다. 그러므로 주기철 목사는 종말론적인 신앙에 힘써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순교의 재단에 이끌려 갔던 것이다.

(2) 성장배경

일제의 한국 침략이 노골화되고 명성황후가 그의 침전에 서 일본군인의 칼날에 희생되어 1895년 11월 22일 장명하게 국장이 치러졌다. 그 사흘 뒤인 11월 25일 주기철(朱基徹)이 경상남도 창원군 웅담면(웅천) 북부리에서 주현성 장로와 재혼한 조재선의 넷째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다. 기철의 어린 시절의 이름은 기복(基福)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의 부친 주현성은 훗날 보수주의로 정명난 경남노회 소속 웅천교회의 장로였으며,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시켰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신앙이 주기철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김지환 목사제교)
-다음호에 계속-

워싱턴 국제 기도모임보고



이학규 장로

춘천성시화기도모임대표

이학규장로(춘천성시화기도모임대표)는 3월25일 오후 7시 World Vision강당에서 3·1절 기념 비전 126 국제 기도 모임 결과를 설교와 함께 보고하였다. 미국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한인교회에서 3월1일부터 6일까지 열린 중보기도모임에는 미국동부지역, 캐나다, 필리핀 마닐라, 한국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 국가와 민족 북한동포와 해외동포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는데 은총의 표시로 만주, 연변지역에 속어사는 10만여명의 탈북자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그는 만주 연변에 집을 만들어 탈북자를 수용, 몇일동안 식사·과일음료, 침실, TV 등

모든것을 마음껏 먹고 쓰게 하고 밖으로 나갈수 있게 잠금장치를 해두었는데 그들은 중국, 한국, 북한 방송을 남한 방송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따금 들어가서 볼뿐 없느냐 안심하라 여기는 안전지대이다. 어떤 이것이 사실이나? 그 이상이다. 불안해하고 의심하던 저들이 달라지고 일부는 예수 믿고 있다는 표현을 하였다고 한다.

민가에서 내보낼때는 35불씩을 주고 다시오고 싶으면 몇명씩 데리고 오라고 약속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탈북자들을 돕고 전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 함석자들은 감동을 받았으며 시명감을 느꼈다.

이 운동을 한국기독교가 전 개개인으로 하고 UN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작성(김상철장로, 김경태장로) 발송하고 귀국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탈북자 보호와 복음전파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생생한 보고를 듣고 이곳 성시기도모임 성도들은 탈북자 보호에 대한 시급성을 느끼고 알게 되었다.

기독교계 뉴스

석사감리교회 새성전입당예배

입택창목사와 석사교회성도들은 창립 77주년을 맞아 구성전인근에 건립한 새성전입당예배를 4월5일 오전11시 축하차온신 온 원근 각처의 목회자와 성도들 1천여명과 함께 드렸으며 11년간 유보해온 장로 13명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 김창수목사(신성감리교회)는 솔로몬의 성전건축과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란 말씀을 전하였으며, 박인관목사(광명교회) 성경봉독, 김광국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와 배계섭시장의 축사 그리고 김영원목사(우두교회) 박이섭목사(신애교회)의 취임장로들에 대한 문답, 선언, 축복기도가 있었으며 원기배목사(광장교회) 정상문목사(동원교회)의 장로와 교회에 부탁말씀이 있었고 임순목감도의 축도가 있었다.

새성전은 춘천시 석사동 산 27-21의 1500평 부지에 연건평 1,195평의(지하 1지상 3층, 중탑) 총공사비 33억8천만원을 드려 97년 3월24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완공하였다.



중고대학생에 장학금 지원



춘천제일장로교회(박상호목사)는 3월27일 오후 3시 본교회당에서 시내 중고대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중학생은 각각 15만원 고등학생은 16만원에서 21만원 대학생은 4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들은 학교에서 22명 교회에서 16명을 추천

받아 전반기 학자금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것이다.

많은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삶을 같이 할때 시민들은 하나님을 찬양 할 것이며 교회에 마음을 돌리게 될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곧 춘천시정화를 위한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동차 통해 성시화운동 전개

춘천시신문은 5월부터 자가용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성시화, 성시신문을 홍보하고 모든 성도들의 동참을 장려기로 하였으며 신앙위에서 모범시민 생활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록 동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소유차량 후면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홍보에 동참해줄것과 신앙을 생활화하는 일에 힘써줄것을 바라고 있다.

영성구조신학세미나

조영준목사(예광침례교회)는 4월18일 19일 국내유명 신학자를 초청 본 교회당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영성구조신학 세미나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많은 교회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 4월 18일 : 평신도 대상(초교파)
- 4월 19일 오전10시~ 오후4시 : 초교파목회자 사모
- 강사 : 이천수목사(인천산성침례교회), 국내의 강의

새로 선출된 동부연회 감리사

4월 6일부터 8일까지 속초감리교회에서 열린 동부연회시 강원지역 22개 지방감리사가 선출되었으며 2년임기에 들어갔다.

춘천서지방 감리사 권오서(춘천중앙)
춘천남지방 감리사 김명분(창대교회)
춘천동지방 감리사 차관식(제일교회)
춘천북지방 감리사 한 군(평화교회)

원주동지방 감리사 박상혁(태장교회)
원주서지방 감리사 이상운(서원교회)
원주남지방 감리사 백용익(개운교회)

영월 지방 감리사 김홍진(녹전교회)
영월서지방 감리사 권영과(마차교회)

속초남지방 감리사 최규현(낙산교회)
속초북지방 감리사 이인재(성광교회)

철원동지방 감리사 최조영(수도원교회)
철원서지방 감리사 방인순(철원교회)

홍천동지방 감리사 이재호(소망교회)
홍천서지방 감리사 연재인(삼포교회)

강릉지방 감리사 심동구(송정교회)
동해삼척 감리사 박길승(성민교회)
인제지방 감리사 한순동(인제교회)
정선지방 감리사 박정홍(별곡교회)
태백지방 감리사 전상규(동광교회)
평창지방 감리사 고문석(진부교회)
횡성지방 감리사 원종국(횡성교회)

양인평장로 전국세진회 이사장취임



양 인 평 장로

사단법인 기독교 세진회는 4월1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5가 연지동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홀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9대 이사장으로 양인평장로(대전지방병원장)를 선출하였다.

세진회일꾼들은 이사장 양인평 명예이사장 최창근 직전이사장 이항수 부이사장 박태창, 박정희, 유영규, 임종현 지회장에 부산 장차남, 전주 김용철, 춘천 임택창, 대전 안종만, 충무 이인철 목사이다.

방주교회 창립예배

방주장로교회(박명자강도사)는 4월 5일 오전12시 춘천시 효자2동 산 26-1번지 성전에서 총회장과 노회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창립예배를

드렸다. 박강도사(부군 김영명집사)는 갯세마네기도원장을 겸하고 있다.

복지시설 식당일 봉사로

모범 보이는 사모님들



장로교단(합동)춘천시찰회 목사사모님들이 목회일의 바쁜 일손을 잠시 중단하고 98년 초부터 World Vision 춘천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

순훈장로) 식당에서 무료급식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일에 봉사하고 있어 모든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기독교계 뉴스

☞ 중앙성결교회 윤철중 목사

3월8일 본 교회 부목사로 백인원 목사가 부임하였다.

지역전도위원회는 3월21일 오후 공지천 야외음악당에서 환경보호활동을 벌였으며 3월 28일 전교인 "사랑의 헌혈 행사"가 중등부실에서 있었다.

4월26일~ 27일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가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열릴 계획이다.

☞ 우두감리교회 김영원 목사

장학금모금 찬양예배가 4월11일 저녁에 있었으며 4월18일 저녁 안창원 선교사 후원에 배를 드린다.

4월30일 저녁부터 5월2일 저녁까지 윤남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춘계복음성회를 가질 계획이다.

☞ 동원감리교회 정상문 목사

3월9일 저녁7시 성가대실에서 "제3기생 베델서사대학"을 개강하였으며 4월11일 연합여선교회 주최로 교회창립 30주년 기념 바자회를 가졌다.

☞ 평화감리교회 한 군목사

본교회 17개 지역장과 27개 지회장 교육이 4월12일 있었으며 4월18일부터 21일까지 창립21주년 기념 부흥회가 교회당에서 열릴 계획이다.

4월25일 오전 "장기기증예배"를 드리고, 저녁예배는 "조승미발레초청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4월28일 저녁, 창립기념 성악·국악 음악공연이 있다. 그리고, 4월30일 철야집회에 창립기념 "교회역사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 석사감리교회 임택창 목사

4월5일 오전 11시에 창립77주년 감사예배와 새성전 입당예배 및 장로 취임 예배를 드렸으며 13명의 장로 취임식을 가졌다. (김수길, 김문수, 최정규, 이영규, 갈재웅, 홍성운, 박무일, 이용규, 박병구, 황정섭, 이동화, 이창, 김철수)

☞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



3월21일 제1기 성경대학 개강식·제2기 성경통신학교 개강식이 있었고, 7일 본교회에서 동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렸다.

4월4일 창립 27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으며 4월25일 만천상전입당 예배, 26일~ 28일까지 성전준공감사 부흥성회가 열릴 예정이다.

만천리 성전은 부지 3,600평 분당 면적 250평 (1,000석) 준2층 100석 (유아실, 성가대, 연습실)이며 대내외적인 각종 교회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가을 부터는 기도원으로 활용, 매일 집회를 갖게 된다.

☞ 제일장로교회 박상호 목사

교회창립 60주년을 맞아 5월7일(금) 오전 11시 본교회당에서 창립기념예배와 장로장립 및 권사 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3인의 장로장립과 3인의 집사안수 협동장로 2인과 안수집사 1인의 취임이 있고 권사 6인의 취임식이 있다.

직장선교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춘천지역 기독교 직장선교 연합회(회장 김영명)는 4월17일 오후1시 방주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1년간 사업계획과 회칙개정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1년임기의 새 임원을 선출한다.

총회는 회칙규정에 따라 현재 수석부회장이 차기회장을 자동승계토록 되어있어 이번 선거에는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회이후 1년간 연합회를 이끌고나갈 이영규장로(농협 강원지역본부)는 춘천석사감리교회 시무장로이며 1990년 초대 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연합회의 산증인일 뿐만아니라 확고한 신앙심과 남다른 연합운동의 열정을 가진 분으로 금후 연합회의 전망이 밝다는 평을 아끼지 않는 회원들도 있다.

기지개를 켜는 연합회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김영명 회장은 3월23일 오후7시 World Vision강당에서 각직장 선교회장과 연합회 임원회의를 갖고 새봄을 맞은 연합회의 할 일을 협의하였다. 이날 결의된 사항은 연합회와 도청기독교신우회가 앞장서서 춘천지역 연합

선교대회를 갖기로 하였으며, 또한 각시군 선교회 연합모임도 추진키로 하였다.

그리고 봄철 유원지, 시가지 청결운동을 벌이기로 하였으며 각직장은 퇴직회원초청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도청직장복음화의 새로운 출발

강원도청 기독교신우회는 91년 6월27일 창립 이래 춘천직장선교회와 도내 각시군 선교회의 견인차적 역할을 하는등 직장복음화와 춘천성시화 사업에 전력을 경주하였으나 수년전부터 힘을 잃고 무력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일부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여기도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많은 회원을 가진 장점을 살릴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마련 재도약의 각오로 출발하였다.

새로운 조직을 보면 제1남선교회, 제2남선교회, 여성선교회로 남자회원의 연령을 45세이상과 이하로 나누고 여자회원을 독립시켰으며 3개선교회를 연합운영할 수 있는 총회를 두었다.

총회장은 박무일장로 부회장 김봉옥안수집사, 총무 양승일집사, 선교부장(청내)

박재복집사, (청외)송윤기 집사, (여성)서영선 집사이며

제1남선교회장 박태순장로, 제2남선교회장 박재복집사, 여성선교회장 서영선집사로서 이들의 사역에 따라 직장복음화가 결정될 것이라고 타 직장선교회들은 주시하고 있다.

도청 기독교신우회장 박무일장로(연합회장)는 3월29일 오후 6:30도청신관상환실에서 첫연합예배를 주관하였으며 조총환목사(정립교회)는 설교에서 요나서의 말씀으로 니느웨성을 회개시키라는 사명을 받은 요나처럼 도청에 파송된 신우회원들의 사명감이 중요하고 급한것을 역설하여 모두에게 깨달음과 제책을 주었다.

한전신우회장 최병일 권사



최 병 일 권사
한전신우회장

한국전력신우회는 2월24일 총회를 열고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최병일권사(평화감리교회)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한전신우회는 직장복음화와 춘천성시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타직장 선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예배와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춘천성시신문 광고사업부기자 모집
기독교인 남여 ○명 (35세이상)준봉사직





김 아 영 작가

- 서울대 회화과 졸업
- 개인전 5회
- 동인전, 삼인행 2회
- 1회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 1회 청년미술작가전
- 현대미술 '89, '91 초대출품
- 주소 : 춘천시 후림동 현대APT 103동 204호
- 전화 : (H)257-6406 (O)256-6411
- 출석교회 : 늘푸른장로교회 집사

• 기독교미술인회 총무 김명순 261-8709(신입)

기독교미술인회 정기총회 개최

춘천기독교미술인회 김정희회장은 3월31일 오전12시 춘천시 만천리 옛날옛집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10월중 제3회 미술작품전시회를 열기로 하였으며 회원간 친목도모와 춘천시 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새임원은 회장 이정수(강원대

미래교수) 부회장 김광남 총무 김명순, 회계 윤혜숙, 감사 김영숙씨를 선출하였으며 기타 임원은 유임시켰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김정희(전회장) 이만진(전회장) 김정복(전총무) 이윤식교수 황재국교수, 김분호 김을수 김춘배 오승자등 21명이었다.

1천원으로 성시신문 제작을 ...

춘천성시신문은 3천명의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으며, 1천원부터 10만원을 정성껏 지원하는 개인들과 1만원에서 100여만원을 매월 지원하는 교회와 직장 선교회 개인 회사에서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시본부운영과 신문 제작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춘천의 기독교인들이 한 가정에서 1천원씩만 지원한다면 성시신문제작은 쉬워질 것이다.

성시신문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수많은 교파와 교단을 하나되게 하는 일에 촉매역할을 하고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를 만드는 일과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들의 소식을 알리고 신앙지식과 경험적인 언어를 통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며 춘천과 전국소식을 전국 도시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가장 급선무인 춘천도성의 성시화 사역을 위하여 각 직장인을 주전도대장으로 보고 문서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성도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춘천 도성 안에 죽어가는 실령들의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먼저 믿는 자들이 앞장서기를 고대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내배가 부르다고, 내일이 바쁘다고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1천원의 헌금을 드려 신문을 제작하여 선교지로 배포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며 세상에 부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1석2조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1천원이 아까운가요. 천원도 없는 형편이라고요.

삼아계신 예수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보내실곳 : 본지7면 참조 (송금방법)

사망권세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대안예수교
장로회

방 주 교 회

창립에 배
(1999. 04. 05)

갯세마네 기도원
(구호렙산 기도원)

담임목사 박명자 강도사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산 26-1번지 1동1반 ☎ 0361-261-5218, 5771

베드로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춘일

춘천중보기도학교 강사

순복음강원지방신학교 교수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52-1 ☎ 261-3167~8

시민광장 시민과 함께

「인도선교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조 은 제 장로

저는 3월14일부터 3월20일까지 인도 파르티아의 이영길 선교사님과 방글라데시 치타공의 정익모 선교사님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영길 선교사님이 계신 인도 비하르 주는 인구 1억에 '선교사의 무덤'이란 별명을 가진 곳인데 최근 2~3년 사이에 기존 기독교인들의 갱신과 부흥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길 선교사는 '순회 선교팀'의 협력으로 6개월 과정의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2회째 하고 있고, 배출된 동역자 10여명과 함께 공동체(KOBI-Korea Bihar Institute) 사역으로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여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서 '영적 전투'의 기도에 대해서 두번째 강의를 하였으며 3월 4째 주에는 춘천 기독교 학문연구회에서 여섯분이 방문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인도는 최근 '힌두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힌두 과격 분자'들의 테러가 심해지고 있는데, 특히 북인도의

구자라트, 오리싸, 비하르 주에서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3일에는 비하르 주 옆에 있는 오리싸 주에서 34년간 나환자를 위해 사역하시던 그라함·스테인(58세) 호주 선교사님이 10세, 6세 된 두 아들과 함께 불에 타 순교하였습니다.

이분은 17세에 인도의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24세에 인도 오리싸주 건너와 나환자 공동체를 세우고 24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16년전 결혼하여 12세 된 큰 딸 등 3남매를 두었는데, 그날도 교회 수련회에 두 아들과 함께 참석했다가 폭도들이 새벽 한시에 이들을 자동차에 가두고 휘발유를 붓고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의 반응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번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또한 건달 힘도 허락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인도를 사랑합니다."라고 하였고,

12세 된 큰 딸 에스더는 "오늘이 내 생애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사랑하는 아빠와 두 동생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장례식 날은 "주가 있음에 내일을 맞이한다"라는 찬송가로 작별 인사를 대신하였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연일 매스컴에 "기독교란 무엇인가? 개종이란 무엇인가? 힌두는 무엇인가? 인도의 자라리며 정신 세계의 대표인 간디는 실제로 거

의 매일 성경을 읽었으며 그의 사상은 성경 말씀과 상부했다"는 보도와, 또 선교사 가족의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용서와 사랑이 기독교 정신인데, 증오와 배신이 과연 힌두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3년전 우연히 산 쪽(명지에서) 벵갈 민족에게 쫓겨 간



의 정신이란 말이나?"고 반문하는 신문사설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대학생 등 지식인들이 힌두에 염증을 품고 이영길 선교사님을 찾아와 상담하고 예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받으시고 인도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려 한다는 것을

부족할)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어 '무종 부족' 같은 경우 2년사이 교회가 4개나 세워진 반면 개종자의 집을 불태우는 등 동족의 핍박이 심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들여 교회를 짓고 열 마일을 전도하는 등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고 합니다.!

최계천집사(한국권투선교프로모션)는 5월29일 오후1시 춘천시 호반체육관(석사동 애마골)에서 슈

권투경기 시작전 복음을 통한 선교와 서울의 유명한 뮤지컬 공연으로 춘천성시회를 위한 선교의

복싱을 통한 복음선교

퍼플라이급 한국1위, 세계15위 최승록 선수와 필리핀 챔피언과의 10회전 경기를 개최할 계획이다.

열기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권투선교프로모션과 춘천성시신문이 주최한다.

사망권세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청웅** 감리사

원로장로: 장순홍
장로: 이필순, 홍현섭, 김준식, 김유수, 민경목

200-091 춘천시 호창1동 673-1 교회: (0361)253-5959
FAX: (0361)256-5969 목사관: (0361)251-1700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부교회**

담임목사: **노정관**

부담임목사: **이학영**
원로장로: 최연실
장로: 박승택, 서만순, 한길홍, 강현욱, 김남웅, 정연균, 김용환, 이상덕, 김용기, 이상범

200-112 춘천시 소양로271 93-34번지 교회: 244-1004 254-2183, 목사관: 256-2183 부목사관: 255-4200

우리의 꿈 우리의 시명 춘천시시화

성시칼럼

칭찬 받는 그리스도인

요즘 방영되는 모 텔레비전 방송국의 "칭찬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꼈다.

칭찬의 대상자들은 모두가 남을 위해 사는 모습이었으며, 그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과 물질의 가치를 쌓아두는데서 찾으려 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이웃들과 나눔에서 찾고 있었다. 윤리와 도덕이 전복되고 불신앙으로 질어지는 세대, 서로 미워하며 죽이고 약탈하는 악이 가득한 이 사회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칭찬 받을 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때문이 아닌가 싶다.

80년전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당시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항거하였으며 일본의 자금을 배격하고 국민자본을 모으기 위하여 근검절약, 금주, 금연, 애국운동에 앞장서 헌신 봉사하므로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

오늘 교회는 금주, 금연은 실패(Symbol)로 삼고 있으나 경제부흥에 따라 근검 절약은 잊은 지 오래이며 배금주의(拜金主義) 사고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앞다투어 신앙의 본질을 추락시키고 있다.

비행기 한대가 땅에 떨어지면 큰 사건이 되어도 기독교인의 신앙이 추락하는 것엔 관심이 없다.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 신앙인들은 화인 맞은 것일까?

교회는 본래의 모습에서 얼마나 이탈하고 있는가. 칭찬보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

초대교회와 같이, 해방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시민들의 칭찬을 회복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정부에서는 제2전국 운동을 펼치고 있다. 춘천에서 일고 있는 성시화운동은 한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국 운동이 아니겠는가.

춘천에 있는 300교회와 4만5백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도성은 정의가 흐르고 거짓과 도둑, 군림과 비굴함이 없는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거룩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4월4일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예수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부활승리하신 것을 재확인하였다. 썩고 냄새나는 죽음의 모습을 버리고 살아있는 교회와 신자의 모습으로 춘천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겠다.

성시신문 기사 보내주 세요

보내실곳

원고접수기간 : 5일까지

주 소 : (우200-091) 춘천시 효자동 373-90번지 춘천시신문 제작부

☎(0361) 256-1260-1

FAX : (0361) 257-1260 PCS:016-246-2752

PC통신ID : KIBIBLE2(하이텔)

E-mail : KIBIBLE2@hitel.net

성시신문은 아주 작은 소식 메세지, 투고도 감사히 받습니다.

※ 구 독 : 성시신문 정기구독(무료)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 본신문은 3,000부를 발행하며 무료입니다.

성시 회비 송금 방법

농협 203-02-280238(예금주/조남진)

강원은행 509-05-025501-001(예금주/조남진)

우체국 200022-0239352(예금주/조남진)

국민은행 301-01-0585-522(예금주/조남진)

제일은행 625-20-265119(예금주/조남진)

· 회비-(단체) 월1만원이상, (개인) 1천원이상

· 년회비-10만원, 특별회비:5만원이상, 평생회비:100만원

· 송금방법은 자동이체가 편리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시 신분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거래은행을 방문하세요.

※매월 5일 강원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시 입금수수료가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

성시화 운동이 임박하였고 여유라 하게 하
에 번 에세 이 역사를 위력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회비 : 100 만원

이 병환

"성시화의 초석은 기도와 헌금과 봉사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교회 다니신 분께는
염가제공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천 일 현 수 막

위치 : 효자1동 660-8(순복음춘천교회 맞은편 유통위)
상담문의 TEL 255-5722 FAX 256-5722

대표 전 천 일 안수집사

섬김성결교회

담임목사 : 김 은 성

춘천시 퇴계동 908-3번지 TEL 244-0191

나눔성결교회

담임목사 : 피 종 호



춘천시 석사동 310-13 TEL 261-2938
목사관:261-2939

기독교역사문화기행

교회종에 대한 특별좌담회

한국교회 종소리는 교회역사와 같이 하였으며 일제 말엽 공출당하고 6·25 동란으로 중단 70년초 주민들의 소음공해 민원과 차임벨 보급으로 종을 대신 하였고 70년말경부터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까지 종을 치고 있는 교회도 상당수가 있다.

• 조충환 목사(본지편집인)

오늘 원로장로님들을 모시고 교회 종에 관한 좌담회를 갖게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일을 제쳐놓고 참석하신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향수로 남아있는 교회 종에 관한 역사와 변화등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알고계신 말씀을 독자들에게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 김익보 장로(춘천신복교회)



제가 어렸을 때(5세)부터 평양에 있는 조왕교회(朝王敎會)에서 치던 종소리가 기억되며 그 종소리가 일제말엽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종소리가 조선사람들의 신앙심과 애국심을 더욱 강하게 하는 동시에 일본 숭배사상이 해이해진다든 판단으로 대일본제국을 위한 공출이란 미명아래 가져 갔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도시 교회 종은 일부였으나 농촌교회종은 거의 다 공출해갔지요.

• 이재균 장로(인제원통교회)



교회종의 역사는 교회역사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본제국은 1941년부터 몇 년간 교회 종을 찬탈해 갔습니다. 종은 고급 쇠라서 우선 순위있고 낯익고, 낯익고,

술가락 등을 공출이란 이름으로 빼앗아 갔어요. 경북 영주군 풍기에 있는 성내교회에서 부친이 목회하셨는데 당시 그곳은 평안도 피난민이 주민의 70%였어요. 그 마을에 정감록 사상에 심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말은 정감록 끝 부분에 있는 存金冷金從金이란 말을 해석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을 때, 자기집 문을 열고 보니 풍기교회의 종이 종각에 매달려 떠 있는 것을 보고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금(浮金) 따위는 종, 냉금(冷金) 밖에 매달려 차가운 종, 종금(從金) 수직으로 달려 있는 종이라는 한자의 뜻으로써 예수 믿으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으며 집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한에서는 새문안교회의 종이 제일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함기초 장로(화천 간척교회)



제가 어렸을 때 보았는데 제 고향 초산 교회에도 그때부터 종을 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 김정하 장로(춘천성광교회)



교회와 종은 바늘과 실같이 함께 있었어요. 당시 주조한 종은 고가이기 때문에 빈 산소통이나 포탄 피를 사용하기도 했고, 휴전 후에 1954년경부터 군인교회가 생겼는데 거의가 105mm 포탄 피를 종으로 활용했습니다.

• 김익보 장로

1961년 현 춘천신복교회로 교적을 옮겼는데 교회 종탑(포탄피)이 낡은 상태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교인이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3만여원)으로 그분의 뜻을 기리고자 종탑을 새로 만들어 세운 것이 현재의 종

탑이지요.

• 함기초 장로

교회 종소리는 우리들의 향수로 살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신앙심으로 이끌고 교회의 대표적인 소리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반면, 일본군인들은 종소리 때문에 조선사람들의 마음이 교회,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게 된다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 이재균 장로

우리 70대 사람들은 종소리에 대하여 남다른 감흥과 향수를 간직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 교회는 새벽종은 주민들의 안면방해등을 고려하여 삼가고 주일 낮 시간에 종을 치고 있어요.

• 함기초 장로

화천 간척교회도 주일 낮에는 종을 계속치고 있습니다. 교회 종을 전문적으로 주조하는 곳은 대구에 사는 신장로님이었으며 1호, 2호등 크기가 달랐어요. 저희 교회는 61년도에 구입(2호)하였는데 종가액은 1만원(현 100만원)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은 종은 금을 1, 2돈 섞은 것으로 그 소리가 멀리 나가고 아름답다고 해요.

• 김익보 장로

신복장로교회는 주일 낮 예배 오후 5시 학생회모임 때 종을 치고 있는데 시골 아저씨인지 주민들의 반발등은 없었습니다.

• 이재균 장로

자유당때, 안동교회 모목사님은 새벽에 종을 친다는 이유로 예비사단장에게 뺨을 맞았을지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 사단장을 파면시켰다는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한국교회종의 대부분은 대구시에 사는 신장로님이 만드셨으며 주물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 조충환 목사

언제부터 교회 종소리가 없어지고 차임벨이 등장하였습니까?

• 이재균 장로

1970년초 제3공화국 때 소음공해 단속이 2, 3년간 있었는데 그것은 특히 도시 주민들의 민원으로 야기된 것이었고 강제철폐등은 없었으며 자체해 줄 것을 권유한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차임벨을 처음 들여온 것은 영락교회(한

경직 목사)로 기억되는데 한목사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 점차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하 장로

춘천에서 제일 먼저 중앙감리교회가 차임벨을 설치하였는데 1970년 전후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73년경 성광장로교회가 설치하였으며 다른 여러교회에서 차임벨을 종대신 사용하게 되었고 70년 말경 종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

다. 장로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종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교회 종 회복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많은 교회가 옛날 종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종이 있는 읍면지역 교회는 주일 낮 예배에 종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노장로님들은 교회 종소리와 함께 초대교회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회 종소리가 기독교인과 시민들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생각된다. "냉그럼 덩그럼"하는 종소리에 신앙 생활을 다시 하게된 사람들도 있고, 교회와 예배를 생각하게 되고 종지는 소리를 들으면 교회로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결석한 교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신앙심을 일으키며 교향과 같은 향수에 젖어 들게도 하였다. 이러한 교회 종소리를 많은 성도들은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녹음 김정주, 기록정리 조선하기자)



▲ 춘천신복장로교회 종탑과 종모습

한국교회부흥의 起爆劑



허걸 목사
뉴욕제일침례교회

오늘의 한국 기독교의 발전은 춘천성시화운동이 그 기폭제(起爆劑) 구실을 하였다고 믿는다.

본인은 이 성시화(성시화)운동의 창립 멤버였으며 초대 총무로서 10여년간 연합운동

사역을 담당하였다. 당시 기독교 교역자 연합회와 평신도 성경구락부 멤버의 연합으로 70년대 초에 연합체가 결성되었고 성시에 대한 원대한 꿈을 품고 출발했었다.

한국대학생선교회와 연합으

로 대규모 춘천집회를 밀거름으로 서울 여의도 전도폭발집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어서 전국 5대도시 동시집회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빌리그레함 한국전도대회(여의도광장)로 이어진 것이 오늘날의 춘천과 한국의 교회 부흥을 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이

었다. 그러므로 춘천의 성시화운동은 한국교회 발전의 기폭제 구실을 특특히 한 셈이 되었다.

이는 또한 춘천의 급속적인 교세 확장이 되어진 중요한 운동이 되었음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 되었다. 이제 200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새로운 꿈을 안고 전교회 전 성소들이 합심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

는데 있어서 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춘천 성시화운동은 한국의 복음화와 춘천의 복음화를 가져와서 오늘의 교세가 되었고 춘천의 성시화는 춘천을 살리는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춘천문화방송을(MBC) 삼천동에 자리잡게 함으로써 춘천지역에서 MBC-TV를 볼 수 있게도 하였고 또한 YMCA와 YWCA운동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Y.s Mam 운동에도 일조를 하여 오늘의 Y가 될 수 있었다. 그 여력으로, 오늘의 기독교방송을 유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인은 비록 외국에 나가 있으나 언제나 춘천을 생각하고 기도해 왔다.

이제 사무실도 있고 후원자

도 있고, 일꾼도 있으며 신년도 발행되는 이즈음에 새삼 어려웠던 옛일이 생각이 난다. 주님오시는 그날까지 힘닿는 데로 서로 기도해가며 기필코 성시를 이루는 날이 오게 되기를 축원한다.

허걸목사는 미국 뉴욕제일 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재직중이며 지난 3월2일 본사를 방문하였고 3월6일 오전11시 호주 모링 뱍티스트 컬리지(Morling Baptist College)에서 개최한 침례교 목회자의 날 세미나 강사로 참석하였으며, 3월7일 오후3시30분 모링 컬리지(Morling College)에서 열린 호주 침례교회 한인교회연합예배에서 설교하였고, 맥카리 한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후 춘천을 거쳐 3월22일 출국하였다.